

고발에 맞고발... 멀고 먼 국회 정상화

여당 '기밀 누설' vs 한국당 '서훈 국정원법 위반' 국회 협상 난기류...6월 국회 '개점휴업' 우려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비공개 만찬 회동 및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서 정국 경색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여권이 통화내용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고발키로 하고, 한국당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원장에 대한 고발 방침을 정하면서 '고발 정국'으로 치닫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 인한 양당의 고소·고발전에 이은 '2차 고발전'이다. 국회 정상화 해법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고발을 둘러싼 갈등이 더해지면서 국회 파행이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28일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에 대해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강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을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은 이날 외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긴급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열고 강 의

원과 그를 암호하는 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당이 강 의원을 '국민 알 권리를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옹호하는 동시에 '외교부 문제'로 간주하며 대외 공세 태세를 갖추자, 이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모양새다.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으로 수세에 놓였던 한국당은 서 원장과 양 원장의 비공개 회동을 고리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다. 두 사람의 회동은 단순한 '개인적인 만남'이 아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둔 회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른바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당장 한국당은 서 원장을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제9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과 만나 "국정원법 위반 여자가 있어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강 의원 고발에 한국당이 서 원장에 대한 고발로 맞서면서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하는 분위기다. 패스트트랙 갈등이 미처 해소되기 전에 '고발전'까지 불사하며 대치하는 데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외교부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한 28일 국회의원회관 강효상 의원실의 출입문이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국회 정상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야가 풀어야 할 정국 현안이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은 지난 20일 '원내대표 맥주 회동'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련했지만, 선결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

해 조건 없는 국회 복귀를 외치는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사과·절화를 조건으로 내건 한국당이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 정상화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분간 극심한 대치국면을 해소할 돌파구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국회법상 '짝수달'인 6월에 임시국회가 자동으로 열리더라도 '개점휴업' 상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공원조성 지방채 이자 최대 70% 지원 당정, 내년 7월 일몰제 앞두고 대책 마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장기 미 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한 일몰제는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내년 7월에 서울시면적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340km²의 도시공원 부지가 실효될 위기에 직면한다"며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공원을 지켜나가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발

표한 대책을 보완하고 추가 신규대책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25%, 특광역시 및 도는 50%를 지원해 주고 있으나 서울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광역시 및 도는 70%까지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채 발행 한도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 지자체가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 작업도 강화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기준 합리화, 환경영향평가 우선 협의 등이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아울러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공원 조성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바른미래 갈등 봉합 '관건은 혁신위원장에 누가 앉느냐'

당권파·바른정당계 혁신위 구성 놓고 신경전

바른미래당 내홍을 수습할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당내 계파 간 신경전이 뜨겁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을 재정비할 혁신위 설치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혁신위의 구체적 권한과 활동 기간, 혁신위원장 인선 문제를 놓고는 다른 속내를 품고 있어서다.

순학규 대표를 비롯한 당권파는 안철수계 의원 6명이 역제안한 이른바 '정병국 전권(全權) 혁신위'를 사실상 거부한 상황이다. '전권'을 전 혁신위의 출범은 손 대표의 중도사퇴를 전제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는 것도 계파 간 갈등이 심각한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28일 "손 대표가 지난 달 '정병국 혁신위' 카드를 먼저 내걸기는 했지만, 그때는 패스트트랙 정국 이전'이라며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중립인사를

당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을 예정"이라며 "관건은 혁신위원장에 누가 앉느냐"라고 했다.

반면 유승민 의원, 오신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손 대표의 사퇴가 담보되지 않는 한 혁신위는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안철수계가 주장한 혁신위의 활동 기간이 6월 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자칫 '순학규 체제'의 시간 끌기 작전에 말려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혁신위에 지도부 거취 문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한 전권을 부여한다는 하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계의 제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들어봤는데 동의하지 못하는 최고위원들도 있다"며 "요식 행위로서의 혁신위는 의미 없다는 반응이 일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바른정당계 일각에서는 '정병국 혁신위' 안을 받아들여 안철수계와 다시금 공동전선을 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병국 의원은 통화해



'불편' 바른미래당 순학규 당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력산업 총체적 난국, 해법은 없나?' 토론회에서 나란히 앉아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 "혁신위가 됐건 제2 창당준비위가 됐건 현 상황에서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라며 "당내 구성원들이 혁신위 출범에 대한

공감대를 갖는 게 우선이다. 그런 절차 이후에 내게 역할을 맡아달라고 하면 마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北,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해달라"

송갑석 국회서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한수영연맹 김동선 부회장과 함께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을 했다.

송 의원은 "민족의 역사적 대화함을 앞둔 중요한 시기마다 남북은 정치도, 이념도, 체제도 고려하지 않고 평화를 앞세워 과감히 결단했다"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남북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의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세계수영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200여 국가 1만5000여 명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모여 치르는 메가톤급 국제대회이다"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른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대회의 성공 요건인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송갑석 국회의원 주최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회의 북한 참가를 통해 남북 평화의 물결을 이어가고 남북의 문화·체육·예술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세계수영대회는 '평화의 물결 속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 200여 국가 1만5000여 명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모여 치르는 메가톤급 국제대회이다"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른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대회의 성공 요건인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오후 2시에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송갑석 국회의원 주최로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총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민주 전남도당 오늘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내년에 치러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과 대비해야 할 전략 등을 고민하는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29일 전남도의회 초의회실에서 '2020총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전남 정치 지형을

분석하고 총선 전략과 준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민주연구원 문병주 수석연구위원이 '총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할 예정이다. 조상방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핵심 정책과제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우승희(민주·영암 1) 전남도 의원, 신대운 지방분권연대 상임대표 등도 패널로 참여해 의견을 교환한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566-9988

돋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돋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J16 40 point 8 5 1

J10 20 point 1 6 5 2 4

J8 14 point 6 8 2 4 7 5 8 1

J7 12 point 2 5 1 6 4 9 7 8 3

J6 10 point 1 3 0 7 5 8 4 9 2

J5 8point 2 4 6 3 7 1 2 8 0

J3 6point 4 6 2 8 1 0 9 7 3

J2 5point 2 7 6 2 1 4 9 0 2

J1 4point 4 0 1 7 7 9 0 0 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point

광주신세계백화점 대리점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